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해설

< > 각 연의 소재

①살어리 살어리랏다. ②<청산>에 살어리랏다

①(랏다) 생략 음수울 ㉠ 살리라, 살겠노라(속세를 벗어나고 싶다는 소망) ㉡ 살아야 했을 것을(옛날에 살았던 청산을 그리워함) ㉢살아갈 것이로다(㉠㉡과는 달리 쫓기는 자의 심정)

②청산: 현실적 공간이 아님.→㉠현실로부터의 도피처(화가 청산에 있다면) ㉡생의 안식처(安息處) 동경의 대상(화가 청산에 있지 않다면)

①멸위랑 득래랑 먹고 청산에 ②살어리랏다.

①ㄱ탈락 향토적 소박한 삶 ② 소망적 어조, 남성적 어조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흥을 돋우기 위한 무의미한 운율적 후렴구(조흥구, 여음), 자아의 지향점(비애가 없는 곳)과 일치

⇒청산(자연)의 동경

①우러라 우러라 ②<새어>,자고 니러 우러라 새어,

①울+어라(감탄형):우는구나 ②작자의 분신, 동병상련의 존재→감정이입법

넌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너보다(비교격) ↳많은 애상적 어조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삶의 비애와 고독

①가던 <새> 가던 새 ②본다, ③물 아래 가던 새 본다.

① ㉠날아가던 새→현실 세계에 대한 미련 ㉡갈던 이랑→삶의 터전을 잃은 상실감,

②보+ㄴ다(의문형) ③ 평원 지대, 속세→5장에서 구체화

④잉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④ ㉠이끼 묻은 쟁기를(자아는 농토를 잃은 농민) ㉡날이 무딘 병기(반란에 가담한 무리)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속세에 대한 미련

이령공 더령공하아 나즈란 디내와손더,

운율적 표현 낮은 지내왔지만

①오리도 가리도 업슨 ②<바므>란 쏘 ③엇디 호리라

울사람도 갈 사람도 ①오(어간)+르(관형사형)+이(의존명사)+도(보조사), 가+르+이+도 ②고독, 절망적 고독 ③애상적 어조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절망적 고독과 비탄-사고무친(四顧無親)

①어디라 더디던 ②<돌>코, ③누리라 마치던 돌코,

① 어디로 던지던 ②아픈 운명 ③누구를

미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미+르+이+도, 괴+르+이+도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아픈 운명-체념
청산에서의 삶(1~4연)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바다 청산과 대응

나무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나문재(해초) 굴과 조개-소박한 삶의 모습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바다(자연)의 동경

가다가 가다가 ①드로라, ②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① 듣는다 ②외딴 부엌

①<사슴미> ②짚대에 올라서 희금을 ③혀거를 드로라.

① ㉠사슴(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람) ㉡광대(놀이판에서 느끼는 고독) ㉢사름의 오기 ②장대 ③ 켜는 것을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생의 서글픔, 기적을 바라는 심정

①가다니 ②뵈 브른 도끼 ③<설진 강수>를 ④비조라.

①가더니 ②가운데가 불룩한 독 ③독한 술 ④빛는다

①조롱곳 누르기 밭과 잡스와니, ②내 엇디 흐리잇고

① ㉠누룩의 냄새가 나를 붓잡으니(한잔 먹고 이 시름을 잊어야지→낙천적 태도) ㉡ 누룩의 냄새가 입을 붙잡으니
(내가 어찌할꼬) ② 체념적 어조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고독, 비애의 낙천적 극복
바다에서의 삶(5~8연)

▣ 핵심정리

■ 작자 : 미상(未詳)

■ 시대 : 고려 시대 중엽 추정 - '무신의 난'과 관련

■ 갈래 : 고려 가요(속요), 서정시

■ 형태상 특징 : 전 8연의 분절체이며, 매연 4구

■ 율조 : 3음보(한국 전통시의 율격), 3·3·2조의 음수율

■ 어조 : 삶의 고통으로부터 위안과 안식을 찾으려는 사람의 방황과 고뇌에 젖은 애상적인 목소리

■ 주제 : 삶의 고뇌와 비애, 실연(失戀)의 애상, 삶의 고통과 그 극복에의 지향성, 현실에의 체념

■ 출전 : 악장가사, 시용향악보(제 1연만 곡조와 함께 수록)

■ 의의

- 서경별곡과 함께 속요 중 문학성이 가장 뛰어난 작품임.
- 고려 사람들의 현실 도피적 인생관이 잘 나타남.
- 운율적 후렴구를 가짐.

연	소재	내용	주제
1	청산	현실 도피	속세를 떠나 자연에서 살겠다.
2	새	삶의 비애	새와 함께 비탄하는 고독
3	새	세속의 미련	속세에의 미련에 번민함
4	밤	절대 고독	절망적 고독에 괴로워함
5	돌	운명적 비애	고독과 번뇌를 운명으로 여김
6	바다	현실 도피	새로운 세계를 찾아감
7	사슴	절박감, 염원	기적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박감
8	강수	체념, 고뇌 해소	술에서 구원의 길을 찾음

★ 각 연의 내용 전개 과정

1연	→ 청산을 그리는 소망
2~5연	→ 청산에 가더라도 겪게 될 갈등
6연	→ 소망을 바다로 바꿈
7~8연	→ 술에 취해 버림

★ 작품의 구조는 대체로 2장씩 대응(구조의 유사성)

<청산>	<바다>
1연 : 청산 - 멀워, 득래	6연 : 바다 - 낙망자기, 구조개
2연 : 새 - 자고 니러 우니노라	5연 : 돌 - 마져서 우니노라
3연 : 가던 새 본다	7연 : 가다가 드로라(튼노라)
4연 : 엇디 호리가	8연 : 내 엇디 흐리잇고

★ 청산 별곡이 지닌 음악성

① 후렴구가 지니는 표현상의 묘미

㉠ 시의 음악성을 잘 살림 → 'ㄹ, ㅁ' 자음과 'ㅏ, ㅑ, ㅣ' 등의 모음의 운율감을 잘 살림(현대시에 와서는 김영랑의 시에 잘 반영됨.)

㉡ 'ㄹ'음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이 후렴구는 '청산도 절로절로'와 같은 흥청거림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해석은 이 노래의 후반부에 나오는 제7연의 '오락의 노래'와 제8연의 '술의 노래'로 관련지어 볼 때 설득력이 있다. 여음의 음상이 주는 이 흥청거림의 느낌은, 이 노래가 정서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괴로움'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실로부터 도피하여 '청산'이나 '바다'로의 강력한 지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여음의 흥청거림의 느낌은 표현과 그 정서 사이에 매우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3음보의 율격- (살어리/살어리/랏다 // 청산에/살어리/랏다.)

③ aaba의 구조

· '형님온다 형님온다 보고싶은 형님온다'(시집살이 노래)

·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산유화)

· '가시리 기시리잇고 나난 바리고 가시리잇고'(가시리)

■ 고려 가요 (장가, 속요, 여요, 별곡)

- (1) 정의 : 고려 시대의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 시가로 ‘여요(麗謠)’ 또는 장가(長歌)라고도 한다.
- (2) 특징 : 리듬이 매끄러우며 표현이 소박하면서도 세련되었다.
- (3) 형성 : 향가와 민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 (4) 형식
 - ① 분절체(分節體) ② 후렴구 발달 ③ 3·3·2조 혹은 3·3·3조의 3음보
- (5) 내용
 - ① 남녀간의 사랑 ② 자연에 대한 예찬
 - ③ 이별의 슬픔 등 평민들의 진솔한 감정을 소박하게 표현하였다.
- (6) 작가 : 대부분이 미상임
- (7) 성격 : 평민 문학, 구전 문학
- (8) 의의 : 고려 가요는 표현의 소박성과 함축성, 풍부한 정서 등 국문학 사상 뛰어난 작품이 많다.
- (9) 수록 문헌 : 오래 동안 구전되다가 조선 초에 ‘악학궤범’, ‘시용향악보’에 기록되어 정착

■ 작품 해설

화자는 삶의 비애를 피해 청산으로 간다. 그러나 청산은 화자의 비애를 해소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바다로 간다. 바다도 구원의 장소는 아니었다. 결국은 그는 한잔 술을 마시고 시름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작품은 고려인의 삶의 비애를 노래하고 있다.

■ 이해와 감상

작자와 창작 연대는 알 수 없고 오랫동안 구전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문자로 정착된 이 노래는, 고려속요 중 서경별곡, 가시리와 함께 비유성과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혀 왔다. 그리고 이 노래는 고려 시대 사람들의 자연애, 현실 도피, 은둔 사상, 취락(醉樂-즐거움에 취함)사상, 낙천성 등 후대 국문학의 주요한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 등, 그 시대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동경과 시름의 해소연이 매우 진솔하고도 절실하게 표출되어 있다.

현실의 생활을 벗어나 자연 속에 묻혀 살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는 노래이다. 이 노래에서 그려지고 있는 자연은 청산과 바다로 집약되며, 그 속에서의 전원적 생활을 그리는 것이 주제에 해당한다. 현실에 대한 퇴영적이고도 도피적인 생각이 담겨 있음도 확인된다. 각 장(연)마다 반복되는 여음구가 음악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시구의 반복을 통한 의미의 강조가 수사적인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교재 변형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득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어 자고 니러 우러라 새어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슨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이령공 더령공 혀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미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서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느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희금을 혀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빙브른 도기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밭와 잡스와니 내 엇디 흐리잇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靑山別曲)」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의미 있는 후렴구를 사용해 시적 의미가 강조하고 있다.
- ② 1연과 6연의 내용이 대칭되고 있다.
- ③ 특정 음운들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각 연에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되는 대상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계절에 따라 변하는 시적화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장의 종결 방식을 통해 시의 어조를 분석함으로써 주체의 감성이 변모하는 양상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산별곡」 각 연의 종결 방식을 고찰함으로써 화자의 정서 및 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죠. 「청산별곡」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각 연에 사용된 문장의 종결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각 연의 문장들에 사용된 종결 방식은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습니다. 8개 연의 화자를 동일인으로 보고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탐구해봅시다.

1연	평서	2연	감탄, 평서
3연	의문	4연	감탄, 의문
5연	의문, 평서	6연	평서
7연	감탄	8연	감탄, 의문

- ① 1연과 6연에서는 평서문 종결 방식의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를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2연에서는 감탄문과 그에 이어지는 호격 표현을 통해 화자가 대상에 감정 이입을 했다고 볼 수 있다.
- ③ 3연과 7연에서는 각각 의문과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 방식으로 화자의 내면을 보여주는 자연물을 사용해 화자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4연과 5연에서는 각각 감탄형과 평서형 종결 방식을 이용하여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8연에서는 감탄문을 제시하여 대상을 통해 내면의 고뇌를 해소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3. <보기>의 ㉠~㉣는 윗글의 시적 화자와 주제에 대한 여러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의 시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 시적 화자를 실연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사별한 상황에서 그 슬픔을 나타낸 노래인 것이다.
- ㉡ 시적 화자를 유랑민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작품은 난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거나 지배층의 착취로 토지를 빼앗기고 떠도는 유랑민들의 고통과 비애를 읊은 노래이다.
- ㉢ 시적 화자를 속세를 떠난 은자(隱者) 혹은 지식인으로 볼 수 있다. 권력의 횡포나 외세의 침략 등으로 인해 속세에 염증을 느끼고 숨어 사는 은자의 인생관을 노래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 ① ㉠의 입장에서 1연의 ‘멀위’, ‘드래’를 이상적 공간의 자연물로 보면, ‘멀위’, ‘드래’는 사랑하는 사람과 추억이 있던 사물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의 입장에서 4연의 ‘밤’을 화자가 홀로 보내는 시간으로 보면, ‘밤’은 절망적인 고독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의 입장에서 2연의 ‘새’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로 보면, ‘새’는 미래에 대한 희망 품고 떠돌아야만 했던 유랑민의 심정이 투영된 대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의 입장에서 5연의 ‘미리’, ‘괴리’를 화자의 상황과 관련지어 보면, ‘미리’, ‘괴리’는 농토를 빼앗은 농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의 입장에서 8연의 ‘강수’를 당대의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보면, ‘강수’는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고자 했던 지식인의 의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내용확인

1. 시적 화자

- ① () ② () ③ ()

2. 운율

- ① ()체로 각 연마다 ()가 붙어 있다.
 ② 3·3·2조의 ()음보 율격, 'a-a-b-a' 구조 등을 사용했다.
 ③ ()의 사용으로 경쾌한 느낌을 준다.

3. 시어 및 시구의 의미

- ① '청산', '바다' : (), () 도피처
 ② '멀위', '드래' : ()
 ③ () : 감정 이입의 대상
 ④ '물 아래' : ()
 ⑤ '가던 새' : (), ()
 ⑥ '잉 무든 장글란' : (), (), ()
 ⑦ '바므란' : ()적인 고독의 시간
 ⑧ () : 화자의 비애를 야기하는 것
 ⑨ '마자셔 우니노라' : 운명적 삶에 대한 ()
 ⑩ '늑므자기', '구조개' : ()
 ⑪ '에정지' : (), ()
 ⑫ '설진 강수' : 독한 술, ()을 잊기 위한 매개체

4. 각 연에 나타난 소재

1	현실 도피	속세를 떠나 자연에서 살겠다.
2	삶의 비애	새와 함께 비탄하는 고독
3	세속의 미련	속세에의 미련에 번민함
4	절대 고독	절망적 고독에 괴로워함
5	운명적 비애	고독과 번뇌를 운명으로 여김
6	현실 도피	새로운 세계를 찾아감
7	절박감, 염원	기적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박감
8	체념, 고뇌 해소	술에서 구원의 길을 찾음

5. 핵심정리

- ① 갈래 : ()
 ② 작가 : 작자미상
 ③ 운율 : ()
 ④ 성격 : ()적, 감상적
 ⑤ 표현상 특징
 1) 울림소리 (), () 사용
 2) 반복법과 상징성이 두드러짐
 3) 각 장 끝에 () 위치
 4) 똑같은 어휘의 ()을 통해 의미를 강조
 ⑥ 주제 : ()
 ⑦ 구성

1연	()에 대한 동경
2연	삶의 고독과 비애
3연	미련과 번민
4연	절망적인 고독과 비애
5연	운명적 삶에 대한 ()
6연	()에 대한 동경
7연	사슴이 해금을 켜는 정경
8연	술을 통한 () 시도와 체념적 심정

서술형

1. '청산별곡'의 후렴구의 역할은 무엇인지 쓰시오.

2. 다음 '아리랑 타령'을 읽어 보고 '청산별곡'과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단, 각각 50자 내외로 서술할 것)

아리랑 타령

이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 / 민씨의 팔촌이 되려무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남산 밑에다 장춘단을 짓고 / 군악대 장단에 받들어총만 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아리랑 고개다 정거장 짓고 / 전기차 오기만 기다린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문전의 옥토는 어찌 되고 / 쪽박의 신세가 웬 말인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밭은 헐려서 신작로 되고 / 집은 헐려서 정거장 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3. '청산별곡'의 갈래를 쓰고 갈래의 특징을 세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4. '청산별곡'의 음악적 아름다움을 실현시키는 요소를 두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5. 이 노래가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리던 당대 고려인들의 삶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때, 이 노래의 주제를 쓰시오.

6. 7연의 '사슴이 짚대에 올라서 허금을 허거를 드로라'는 1)'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연주하는 것을 듣노라', 2)'사슴 분장을 한 사람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연주하는 것을 듣노라' 등의 해석이 가능하다. 각각의 해석에 따른 화자의 정서를 서술하시오.

7. 5연을 현대어로 풀이하고, '돌'의 함축적 의미를 서술하시오.

8. 이 작품과 다음 <보기>의 형식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보기>

우다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습가
이어라 이어라
漁어村촌 두어 집이 다 속의 나락들락
쫓지 국憲총 쫓지 국憲총 於어患사臥와
말가한 기픈 소희 온갈 고기 뛰노다다

9.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중심으로 이 작품과 <보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조건>에 따라 서술하십시오.

<보기>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海原)을 향하여 흐르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理念)의 꺾대 끝에
 애수(哀愁)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닦은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단 줄을 안 그는.

- 유치환 '깃발' -

<조건>

1. 두 작품의 본문에 나온 단어를 반드시 포함할 것
2. <보기>의 화자는 '깃발'로 설정할 것

10. 이 작품의 '청산'과 <보기>의 '靑山(청산)'의 차이점에 대해 60자 내외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십시오.

<보기>

靑山(청산)다 엇데헝야 萬古(만고)애 프르르며
 流水(유수)다 엇데헝야 晝夜(주야)애 굻디 아니라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靑(만고 상청) 호리라

11. 8연의 '강수'와 <보기>의 '(술) 한 잔'의 공통적 기능에 대해 <조건>에 따라 서술하십시오.

<보기>

한 잔 먹새 그려 흥 한 잔 먹새 그려 곱 것거 算(산)
 노코 無盡無盡(무진무진) 먹새 그려
 이몸 주근 후면 지게 우헝 거적 더퍼 주리혀 밀여가나
 流蘇寶帳(유소보장)의 만인이 우러네나 어육새 속새 덩
 가나무 白楊(백양)수폐 가기곳 가면 누른 흥 흰 덧 까다
 비 굴근 눈 쇼소리빛람 불 제 뉘 한 잔 먹자 흥고
 흥믈며 무덤 우헝 짜나비 하람불 제 뉘우칭뎃 엇더리

<조건>

1. 두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 및 태도와 관련지어 논지를 전개할 것
2.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00자 내외로 쓸 것

12. 작품 속 화자의 위치에 따라 '청산에 살어리랏다'의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서술하십시오.

13. <보기>는 이 작품의 다양한 해석 가운데 하나이다.
<보기>의 [가]와 [나]를 종합하여 <조건>에 따라 이 시의 3연을 현대어로 해석하시오.

<보기>

[가] 이 시의 화자를 경작하던 밭을 빼앗기고 산 속에 들어가 옛 생활을 회상하고 있는 유랑민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나] ‘가던’은 ‘(밭을) 갈던’에서 ‘ㄹ’이 탈락된 형태로, ‘새’는 ‘사래’에서 ‘ㄹ’이 탈락되고 축약된 형태로 보기도 한다. 이 경우에 ‘잉 무든 장글란’은 ‘이끼 묻은 쟁기를’로 해석된다.

* 사래 : 묘지기나 마름이 수고의 대가로 부쳐 먹는
논밭

<조건>

1. 현대어의 어법에 맞고 의미가 통하도록 할 것
2. 본문의 기본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

정답 및 해설

교재변형문제

1. <답> ②

① 의미 없는 후렴구를 사용했다. ③ 각 연마다 3·3·3 (2)조의 정형적 율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후렴구에서 ‘ㄹ’, ‘ㅇ’ 등의 특정 음운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각 연에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되는 대상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계절에 따라 변하는 시적화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2. <답> ④

4연과 5연은 모두 의문형 종결 방식을 이용하여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3연의 ‘가던 새’는 화자의 내면이 투영되어 있는 자연물이다. 그리고 7연의 ‘사슴’은 ‘짚대’에 올라 ‘희금’을 켜는 정경은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부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8연의 ‘가다니 빙그레 도끼 설진 강수를 비조라’는 감탄문으로, ‘강수’를 통해 내면의 고뇌를 해소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나타난다.

3. <답> ②

① ‘멀위’, ‘드래’는 소박한 삶을 나타내는 자연물이다. ③ 2연의 ‘새’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로 보면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④의 입장에서 ‘새’는 미래의 희망을 품지 못하고 떠돌아야만 했던 유랑민의 심정이 투영된 대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④ ‘미리’, ‘괴리’는 농토를 빼앗은 농민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강수’는 내면의 고뇌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물이다.

내용확인

1. <답> ① 실연한 사람 ② 유랑민 ③ 속세를 떠난 은자 또는 지식인

2. <답> ① 분연, 후렴구 ② 3 ③ 올림 소리(ㄹ, ㅇ)

3. <답> ① 이상향, 현실 ② 소박한 음식 ③ 새 ④ 속세 ⑤ 가던 새(鳥,) 갈던 사래(밭고랑) ⑥ 이끼 묻은 쟁기, 이끼 묻은 은장도, 날이 무딘 병기 ⑦ 절망 ⑧ 돌 ⑨ 체념 ⑩ 소박한 음식 ⑪ 외딴 부엌, 마당 ⑫ ‘현실의 괴로움

4. <답> 청산, 새, 새, 밤, 돌, 바다, 사슴, 강수

5. <답> ① 고려가요(고려속요) ③ 3·3·2조 3음보 ④ 애상 ⑤ 1)ㄹ, ㅇ 3) 후렴구 4) 반복 ⑥ 삶의 고뇌와 비애, 삶의 고통과 그 극복에의 지향성, 현실에의 체념 ⑦ 청산, 체념, 바다, 고뇌의 해소

서술형

1. <답> 악기의 음을 흉내 낸 소리로 노래의 내용과는 무관한 여음 내지 후렴구, 음악적 흥취를 고조시키고 있다. 명랑하고 낙천적인 느낌, 노래 내용과는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2. <답> 1) 공통점 : ‘청산별곡’과 ‘아리랑 타령’은 모두 삶의 고통이 잘 드러나 있다. ‘청산별곡’에 나오는 ‘시름한 나’라든지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또 엇디호리라, 미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서 우니노라’ 등의 표현은 삶의 고통을 직설적으로 드러내 보여 주고 있다. ‘아리랑타령’에서도 나오는데 ‘쪽박의 신세가 웬 말인가와 같은 한탄을 표현하는 구절이 그런 예일 것이다. 후렴구가 있다. 2) 차이점 : ‘청산별곡’에는 삶의 비애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아리랑타령’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문전의 옥토는 어찌 되고’라든지 ‘밭은 헐려서 신작로 되고’ 등 일제에 의한 우리민중들의 고단한 삶의 실상이 그 원인으로 제시되어 있다. ‘청산별곡’은 ‘ㄹ, ㅇ’이 밝고 경쾌하다.

3. <답> 후렴구의 발달, 3음보의 율격, 분절체, 고려시대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 구전되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기록됨

사래를 본다.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속세에서 갈던 사래를 본다.

4. <답> 3.3.2조, 3음보의 율격, a-a-b-a의 구조, 후렴구 사용, ㄹ.ㅇ사용

5. <답> 삶의 고뇌와 비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

6. <답> 1) 삶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 2) 삶의 고독감

7. <답> 어디에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이던 돌인가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없이 (돌에) 맞아서 울고 있노라. / 인간의 비극적 운명

8. <답>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후렴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작품은 3·3·2조의 3음보의 율격이고, <보기>는 3(4)·4조의 4음보 율격을 지닌다는 차이점이 있다.

9. <답> 이 작품의 화자는 '청산'과 '바다'를, <보기>의 화자는 '푸른 해원'이라는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이들 공간은 모두 현실에서 벗어난 곳이라는 점에서 이상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기>의 화자가 이상적인 공간에 다가가지 못하고 그 지향성만을 드러낸 채 좌절하고 만다는 점은, 경험적 인식을 바탕으로 체념하는 이 작품의 화자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10. <답> '청산별곡'의 '청산'은 현실에서 벗어나 살고자 하는 곳으로 도피의 공간이고, <보기>의 '靑山(청산)'은 영원히 변함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서 지향과 예찬의 대상이다.

11. <답> 이 작품의 화자는 고독감과 비애감으로 삶을 힘겨워하고 있으며, <보기>의 화자는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삶의 허망함을 깨닫고 있다. 이러한 화자들에게 '술'은 공통적으로 삶의 고뇌를 해소시키는 수단이 된다.

12. <답> 청산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살어리랏다'는 '살아야만 하는구나'라는 한탄으로 들리고, 청산에 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살어리랏다'는 '앞으로 청산에 살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13. <답> 갈던 사래, 갈던 사래를 본다. 속세에서 갈던